



2025. 6.

국회에산정책처 | 현안보고서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Fis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2025 National Pension Act Amendment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총괄 | 상지원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해정 조세분석심의관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작성 | 김우림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지원 | 김현실 사회비용추계과 행정실무원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 02) 6788-3729 | sc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나. 국민연금 연금부채 전망

(1) 연금부채 계산 방법

① 개념의 정의³¹⁾

연금부채(pension liability 또는 actuarial liability)는 미래 지급해야 하는 급여 총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또한, 미적립부채란 현재 추정된 부채(liabilities)와 자산(assets)의 차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liability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부채'라고 지칭하지만 해외에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는 연금부채를 Cost(비용)라는 말로 지칭하고 미적립부채를 unfunded obligation(미적립 의무)으로 지칭한다. 캐나다의 CPP(Canada Pension Plan)는 연금부채를 actuarial obligations(계리적 의무)으로 명명하고, 미적립부채는 Asset Shortfall(자산부족)으로 지칭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래 예상되는 급여 지출의 현재가치를 '이중 부담'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는데, 일본의 2024년 재정검증 부속자료에 따르면, 공적연금을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현 세대는 자신의 미래 급여를 충당하는데 소요될 적립금을 적립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동시에, 과거에 발생한 수급권 중 현재의 적립금이나 국가 부담으로 충당되지 않은 부분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 부담'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마다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연금부채'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연금부채는 산출 시 포괄하는 발생 권리의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래 발생이 없는 폐쇄집단방식(Closed Group without future Accruals)은 현재 수급자와 가입자에 대하여 평가 시점까지 발생한 권리³²⁾에 기반하여 장래에 발생할 급여지출을 현재가치화하여 연금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미래 발생이 있는 폐쇄집단방식(Closed Group with future

31) OECD와 World Bank에서 발간한 다음의 두 문헌을 참고하였다.

Van den Noord, Paul, and Richard Herd. *Pension liabilities in the seven major economies*, No. 142. OECD Publishing, 1993.

Holzmann, Robert, Robert J. Palacios, and Asta Zviniene. *Implicit pension debt: Issues, measurement and scop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Vol. 403. Social Protection, Labor Markets, Pensions, Social Assistance, World Bank, 2004.

32) 여기서의 권리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미래 획득되는 급여지출에 대한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Accruals)은 현재 가입자에 대하여 미래 발생할 권리까지를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개방집단방식(Open Group)은 현재 수급자와 가입자뿐만 아니라 미래 가입자에 대하여 미래 발생할 권리까지를 부채로 인식한다.

[표 31] 연금부채 계산 방식에 따른 부채의 범위

구분	현재 수급자	현재 가입자		미래가입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권리	미래 보험료 납입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권리		
미래 발생이 없는 폐쇄집단방식	○	○	-	-
미래 발생이 있는 폐쇄집단방식	○	○	○	-
개방집단방식	○	○	○	○

주: 여기서 '현재'는 평가시점을 의미함

자료: OECD(1993), World Bank(2004)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러한 세 가지 산출방식은 정책적 의미가 다르다. 미래 발생이 없는 폐쇄집단 방식의 경우 현 시점에 제도를 청산한다고 했을 때 지급 의무가 남아있는 미래 급여지출의 현재가치이다.³³⁾ 두 번째 미래 발생이 있는 폐쇄집단방식은 신규가입자를 더 이상 받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종료한다고 하였을 때 예상되는 미래 급여지출의 현재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향후에도 계속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급해야 할 미래 급여의 현재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계리사회(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 IAA)가 제공하는 지침(International Standard of Actuarial Practice 2: ISAP2)은 부과 방식이나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금부채는 개방집단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고,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폐쇄집단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동일하게, 캐나다의 2021년 연금재정계산 보고서

33) 미래 발생이 없는 폐쇄집단방식은 현재 수급권 미회득자를 포함할지 여부와 향후 임금상승과 급여조정을 반영할지 여부에 따라 보장급여채무(Vested Projected Obligation: VPO), 누적급여채무(Accumulated Projected Obligation: APC), 예측급여채무(Projected Benefit Obligation: PBO), 지수연동급여채무(Indexed Benefit Obligation: IBO)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미래 발생이 없는 폐쇄집단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예측급여채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는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캐나다 공적연금(CPP)이 현재 기여자들의 기여금으로 현재 수급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적계약이므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개방집단방식을 활용하여 현재 및 미래 참여자들의 급여와 기여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2021).

한편, 연금부채는 자산과 함께 추정하여 미적립부채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미적립부채란 현재 추정된 부채(liabilities)와 자산(assets)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때 자산 역시 연금부채 산출방식별로 차이가 있다. 미래 발생이 없는 폐쇄집단방식은 현재까지 발생한 권리만 부채로 인식하므로, 자산 역시 현재까지 축적된 자산만 고려한다. 반면, 미래 발생이 있는 폐쇄집단방식은 현재 가입자의 미래 권리까지 부채로 인식하므로, 자산을 추정할 때 현재 가입자가 미래 축적할 자산, 즉 미래에 납부한 보험료 수입까지를 포괄한다. 개방집단방식에서는 미래가입자가 미래에 축적할 자산까지 모두 고려한다.

[표 32] 미적립부채 계산 시 고려하는 자산의 범위

구분	현재 수급자	현재 가입자		미래가입자
	현재까지 축적된 자산	미래 축적될 자산(미래 기여금)		
미래 발생이 없는 폐쇄집단방식	○	○	-	-
미래 발생이 있는 폐쇄집단방식	○	○	○	-
개방집단방식	○	○	○	○

주: 여기서 '현재'는 평가시점을 의미함

자료: OECD(1993), World Bank(2004)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할인율

연금부채 산출 시 사용하는 할인율에 따라 산출 결과에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동일한 경상금액에 대하여 더 큰 할인율을 적용할수록 할인된 현재가치는 작아지기 때문이다. 연금 회계처리지침도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할인율의 선택은 이 예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금사업간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충분히 객관적·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연금부채 산출 시 어떤 할인율을 사용할 것

인지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과거 10년 평균 국채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급여의 예상 지급시기에 상응하는 1년, 3년, 5년, 10년, 20년 만기 수익률을 적용하되, 해당 만기 수익률이 없는 경우 보간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지급 시기가 20년 이후인 경우에는 20년 만기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는 연금 회계처리지침에서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를 환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대하여 화폐의 시간가치를 제외한 보험수리적 위험, 투자위험 및 국가회계실체 고유의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도록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캐나다, 핀란드 등은 기금투자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연금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기금투자수익률은 투자위험을 포함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적립방식의 제도에서는 기금의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미래 연금 지급이 충당될 것이기 때문에, 기금 운용 방식과 부채 산출 방식을 일치시키는 의미에서 기금투자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자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속도를 고려하여 미래 연금급여 지급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도 기금투자수익률이 더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다.³⁴⁾

[표 33] 주요 공적연금제도별 연금부채 산출·활용 현황

구분	연금부채 활용 방식	적용하는 할인율
한국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국가재무제표의 필수보충정보에 연금충당부채보고서를 포함	과거 10년의 평균 국채 수익률
미국 OASDI ¹⁾	요약지표에 개방집단방식으로 산출된 계리적수지차와 미적립부채 기재(추정기간: 75년)	기금투자수익률
캐나다 CPP ²⁾	재정계산보고서 부록에 개방집단방식의 재무상태표를 기재(추정기간: 75년)	기금투자수익률
일본 후생연금	재정계산보고서에 미래발생이 없는 폐쇄집단 방식을 적용하여, 미래 지급해야 할 총 급여액의 현재가치와 현재 자산의 차이('이중부담액'으로 명명)를 기재	기금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을 활용한 결과를 각각 제시

34) 한편, 일본의 2024년 재정검증 부속자료는 기금투자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하는 것에 더하여 임금상승률을 활용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기금투자수익률로 환산한 수치는 연금부채를 현재 시점의 적립금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금상승률로 환산한 수치는 연금부채 규모를 경제성장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구분	연금부채 활용 방식	적용하는 할인율
핀란드 TyEL ³⁾	재정계산보고서에 개방집단방식을 적용하여, 미래 연금지출의 현재가치와 연금지출의 현재가치 대비 자산의 현재가치 비율(수지비율)을 기재	기금투자수익률

주: 1) 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2) CPP: Canada Pension Plan

3) TyEL: Työntekijän eläkelaki(Employees Pensions Act)

자료: 미국의 Social Security(2024), 캐나다의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2021), 일본의 후생노동성(2024)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 공적연금의 연금부채

□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 제도 개요: 보험료율은 개인 9%·국가 9%, 연금지급률은 2015년 1.9%에서 2035년 1.7%까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중, 부과식으로 운영
- 연금총당부채: 2023회계연도 기준 985조 95억원
 - 미래 발생이 없는 폐쇄집단방식으로 국채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추정

□ 미국 OASDI

- 제도 개요: 보험료율은 12.4%, 65세에 급여를 수급하는 1990년생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은 36.6%(35년 이상 가입), 부과식으로 운영
- 미적립 의무(unfunded obligations): 2024-2098년(75년)에 걸친 미적립 의무는 2024년 1월 1일 기준 22조 6,180억 달러(약 3경 850조원)
 - 개방집단방식으로 기금투자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추정

□ 일본 후생연금·국민연금

- 제도 개요: 보험료율은 18.3%, 후생연금(남성 수급)과 국민연금(부부 수급) 혼합 수급 기준 소득대체율은 2024년 기준 61.2%
- 이종부담액: 2024년 말 기준 기금투자수익률로 할인 시 650조엔(약 5,852조원), 임금상승률로 할인 시 600만엔(약 5,402조원)
 - * 과거 30년의 경제성장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준으로 제시
 - 폐쇄집단방식으로 기금투자수익률과 임금상승률 두 가지를 할인율로 사용하여 추정

□ 캐나다 CPP

- 제도 개요: 보험료율은 Base CPP와 Additional CPP의 첫 번째 소득구간에 대하여 11.9%, Additional CPP의 두 번째 소득구간에 대하여 8%가 추가 부과, 소득대체율은 최대 33.33%, Base CPP는 부과식으로, Additional CPP는 적립식으로 운영
 - 기존 캐나다 공적연금인 Base CPP에 해당하는 제도만 있었으나 2019년부터 적립식으로 운영하는 Additional CPP를 도입하였으며, 2025년 기준 CA\$71,300 이상 CA\$81,200 이하의 연간 소득에 대하여는 총 8%의 보험료율을 추가로 부과
- 계리적 의무(actuarial obligations): 2022~2096년(75년)에 걸친 계리적 의무는 2021년 말 기준 Base CPP의 경우 3조 5,230억 캐나다달러(약 3,507조원), Additional CPP의 부채는 8,565억 캐나다달러(약 853조원), 두 시스템 모두 자산이 부채 규모를 상회
 - 개방집단방식으로 기금투자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추정
 - 자산의 부채 초과분: Base CPP의 경우 604억 캐나다달러(약 60조원, 자산이 부채의 101.7%), Additional CPP의 경우 572억 캐나다달러(약 57조원, 자산이 부채의 106.7%)
 - 단, 폐쇄집단방식으로 추정한 결과를 각주로 명시
 - Base CPP의 계리적 의무는 1조 6,861억 캐나다달러(약 1,678조원), 자산부족(assets shortfall)은 1조 1,424억 캐나다달러(약 1,137조원)
 - Additional CPP의 부채는 122억 캐나다달러(약 12조원), 자산부족은 12억 캐나다달러(약 1조원)
 - 폐쇄집단방식으로 연금부채를 추정하였을 때 자산부족분이 산출되나 개방집단방식으로 추정하면 자산의 초과분이 나타나는 것은 2016년 연금개혁을 실시한 영향에 의한 것으로 해석됨

□ 핀란드 민간부문 법정연금(TyEL)

- 제도 개요: 보험료율은 2025년 기준 평균 24.85%, 2017년 은퇴 근로자의 소득대체율 중 임금은 과거 3년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의 약 58%, 부분적립식으로 운영
 - 보험료율: 근로자의 경우 53세 미만 또는 63세 이상이 7.15%, 53-62세가 8.65%를 부담하고 고용주가 평균 17.38% 부담
- 연금지출의 현재가치: 2022~2090년(69년)에 걸친 연금지출의 현재가치는 2021년 말 기준 9,589억 유로(약 1,414조원), 연금지출의 현재가치 대비 자산의 현재가치 비율(수지비율)은 97.6%
 - 개방집단방식으로 기금투자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추정

주: 원화 환산은 2024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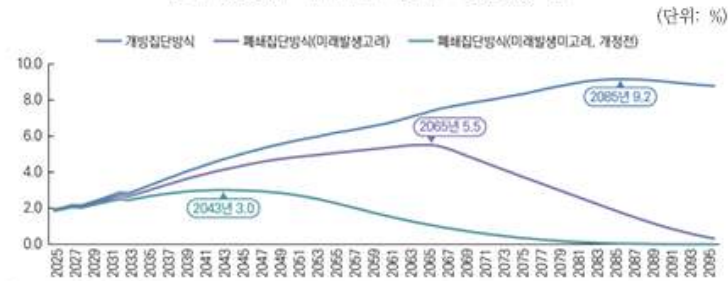
자료: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2024), 미국의 Social Security(2024), 캐나다의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2021), 일본의 후생노동성(2024), 핀란드의 Finnish Centre for Pensions(2022)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국민연금 연금부채 및 미적립부채 규모 추정

본 보고서는 미래 발생이 없는 폐쇄집단방식, 미래 발생이 있는 폐쇄집단방식, 개방집단방식 세 가지를 구분하여 국민연금의 연금부채와 미적립부채를 추정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금부채는 확정된 부채가 아니며, 미래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현재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미적립부채의 경우에도 미래 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향후 확보해야 할 자산의 현재가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보고서는 해외사례를 준용하여 기금투자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연금부채 등을 산출하고, 핀란드 사례를 참고하여 기금투자수익률을 1%p 상향 조정 한 것과 1%p 하향 조정한 경우를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그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³⁵⁾

연금부채 산출에 앞서, GDP 대비 급여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2024년 말까지의 기 수급자와 기 가입자가 확보한 수급권만 고려하는 경우, 즉 2024년 말 이후 제도를 종료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급여지출은 2025년 1.9%에서 2043년 3%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되 신규가입자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현재 가입자에게만 미래 가입이 허용된다고 가정하는 경우(미래발생이 있는 폐쇄집단방식) GDP 대비 급여지출 비중은 2065년 5.5%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만약 미래가입자까지 모두 고려하는 개방집단방식으로 추정하게 되면 GDP 대비 급여지출은 2025년 1.9%에서 2085년 9.2%까지 증가하다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9] GDP 대비 급여지출액 비율(개정 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5) 핀란드의 경우 기준선의 할인율에 +1.2%p, -1.2%p한 것을 각각 고할인율 가정과 저할인율 가정으로 명명하고, 해당 가정별 결과를 재정계산보고서에 함께 제시하고 있다.

개정법률에 따른 제도에 대하여 개방집단방식 기준으로 연금부채를 추정하면, 2095년까지 발생할 연금부채의 현재가치는 6,35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금부채에서 자산을 차감하면 미적립부채가 산출되는데, 개방집단방식 기준의 미적립부채는 1,820조원으로 추정된다. 만약 2024년 말 기준으로 더이상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미래발생 없는 폐쇄집단방식), 미적립부채, 즉 현재까지 확보된 수급권에 대한 미래 지급을 위해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자산의 현재가치는 920조원으로 추산된다.³⁶⁾

[표 34] 연금부채 추정액(개정 후)

(단위: 조원)

구분	폐쇄집단방식 (미래 발생 ×)	폐쇄집단방식 (미래 발생 ○)	개방집단방식
연금부채(A)	2,132	4,164	6,358
연금자산(B)	1,213	2,513	4,538
미적립부채(B-A)	920	1,651	1,820

주: 1. 기금투자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2024년 말 시점 현재가치로 전환
 2. 미래 발생이 없는 폐쇄집단방식은 개정법률 적용의 영향을 받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 결과는 개정법률 적용에도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기금투자수익률로 할인을 할 경우에도 여전히 미적립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부채를 현재가격화 할 때 기금투자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기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투자 수익을 얻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부채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필요로 하는지 평가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따라서 기금투자수익률로 할인했을 때도 여전히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는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및 추가적인 재원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6) 이 결과는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2024년 말 기준 가입자 및 가입이력자, 수급자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이다. 참고로, 한국개발연구원(2024)은 노령연금만을 고려하여 미래발생이 없는 폐쇄집단방식을 활용할 경우, 2023년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609조원(기금운용수익률로 할인)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급여지출 중 노령연금에 대한 지출만을 고려한 수치로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급여지출 범위와 차이가 있다.

다만, 법률 개정 전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 연금부채와 미적립부채는 개방집단 방식 기준으로 각각 6,089조원, 미적립부채는 2,490조원으로 추산된다.³⁷⁾ 즉,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연금부채는 늘어났으나(지출 확대) 기여금이 함께 확대되어 미적립부채는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금번 국민연금개혁으로도 아직 재정적 불안정성이 존재하지만 중진 제도와 비교하여 재정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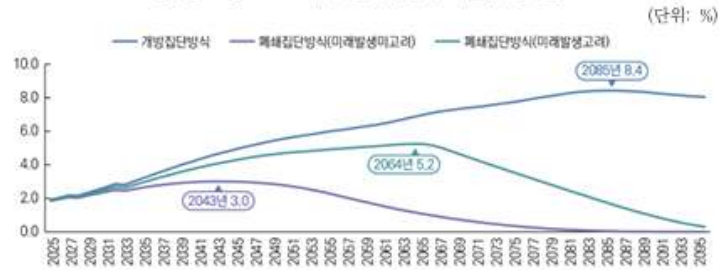
[표 35] 연금부채 추정액(개정 전)

(단위: 조원)

구분	폐쇄집단방식 (미래 발생 ×)	폐쇄집단방식 (미래 발생 ○)	개방집단방식
연금부채(A)	2,132	4,043	6,089
연금자산(B)	1,213	2,188	3,600
미적립부채(B-A)	920	1,855	2,490

주: 기금투자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2024년 말 시점 현재가치로 전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10] GDP 대비 급여지출액 비율(개정 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7) 국민연금연구원(2022)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모형을 활용하여 개방집단방식으로 추정된 결과 2022년 기준 현재가치로 연금부채는 4,778조원, 미적립부채(보고서에서는 '자산부족'이라는 용어 사용)는 1,735조원으로 전망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70년의 평가기간에 대하여 기금투자 수익률을 할인한 결과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평가기간을 150년으로 확장한 결과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의 연금부채는 7,209조원, 미적립부채는 3,453조원이다. 다만, 이 결과는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정부의 제5차 재정계산과 그 이후 통계청의 최신 장래인구추계(2023.12.)를 반영한 제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급여지출 전망액 규모가 2060년대 초반까지 제4차 재정추계 결과보다 더 높게 전망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기금투자수익률을 일괄 1%p 상향 조정한 것을 할인율로 사용할 경우, 개방집단방식의 연금부채는 4,624조원, 미적립부채는 787조원으로 산출된다(시나리오㉠), 반대로 기금투자수익률을 일괄 1%p 하향 조정한 것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개방집단방식의 연금부채는 9,057조원, 미적립부채는 3,480조원이 된다(시나리오㉡). 이는 기금투자수익률이 증가할수록 미래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재원의 수준이 줄어드는 반면, 반대의 경우 미래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재원의 수준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36] 연금부채 추정액(개정 후): 시나리오

(단위: 조원)

구분	폐쇄집단방식 (미래 발생 ×)	폐쇄집단방식 (미래 발생 ○)	개방집단방식	
기준선	연금부채	2,132	4,164	6,358
	연금자산	1,213	2,513	4,538
	미적립부채	920	1,651	1,820
시나리오㉠ (기금투자수익률 +1%p)	연금부채	1,802	3,242	4,624
	연금자산	1,213	2,378	3,837
	미적립부채	589	864	787
시나리오㉡ (기금투자수익률 -1%p)	연금부채	2,560	5,482	9,057
	연금자산	1,213	2,675	5,577
	미적립부채	1,347	2,807	3,480

주: 1. 기금투자수익률(시나리오㉠, ㉡)는 기금투자수익률 +1%p, -1%p)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2024년 말 시점 현재가치로 전환
 2. 미래 발생이 없는 폐쇄집단방식은 개정법률 적용의 영향을 받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